



VIDO Monthly Report
Apr.

4월 VIDO 월간 레포트

VIDO Report는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VIDO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4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 Media Art Trend

-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 버추얼 아티스트
- 미디어아트 환경교육 '수상한 바다탐험전'

■ VIDO's News

- 코엑스 'Blossom The Hope'에서
<Art in Blossom : The Palette of Expressions>
전시 개최

■ VIDO's Artist

- 'NAKTA(낙타)'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4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버추얼 아티스트 (Virtual Artist) 🎤

버추얼 아티스트(Virtual Artist)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아티스트를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섬세해진 움직임과 사실적인 비주얼이 가능해져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외모부터 성격, 행동까지 모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용이하고, 사생활 문제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디한 노래와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티스트는 신비한 매력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까지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1

더 알아보기 2

미디어아트 환경교육 - '수상한 바다탐험전'

수원시 도서관에서 '수상한 바다탐험전'을 열어 도시 쓰레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디어 아트로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인식과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국비 지원하며, 수원 지혜샘어린이 도서관에서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수상한 바다탐험전'은 바닷속에서 생물들이 지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를 미디어아트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바닷속 모습에서 쓰레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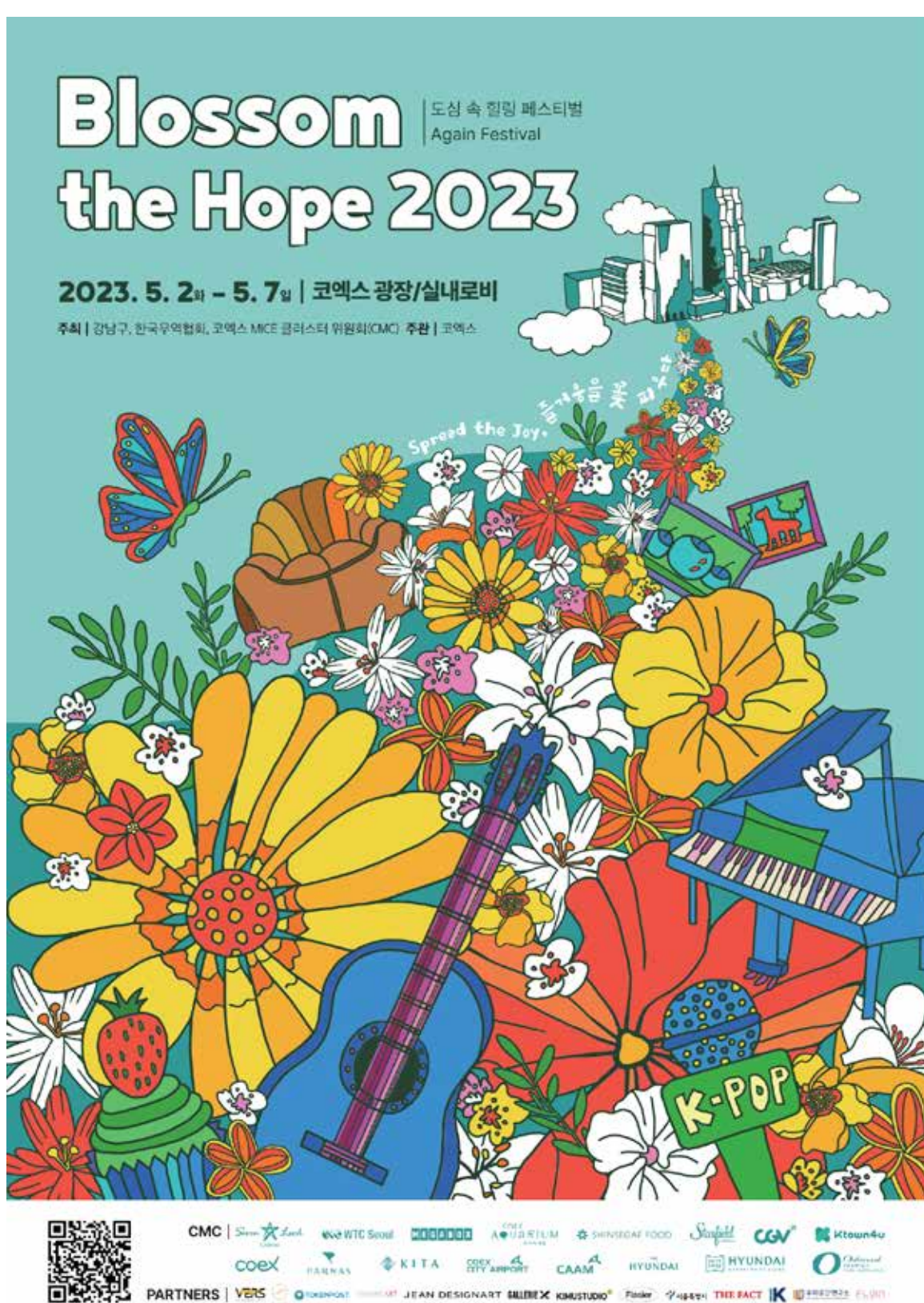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미디어 아트 스케치 월' 프로그램 진행 모습

Vido'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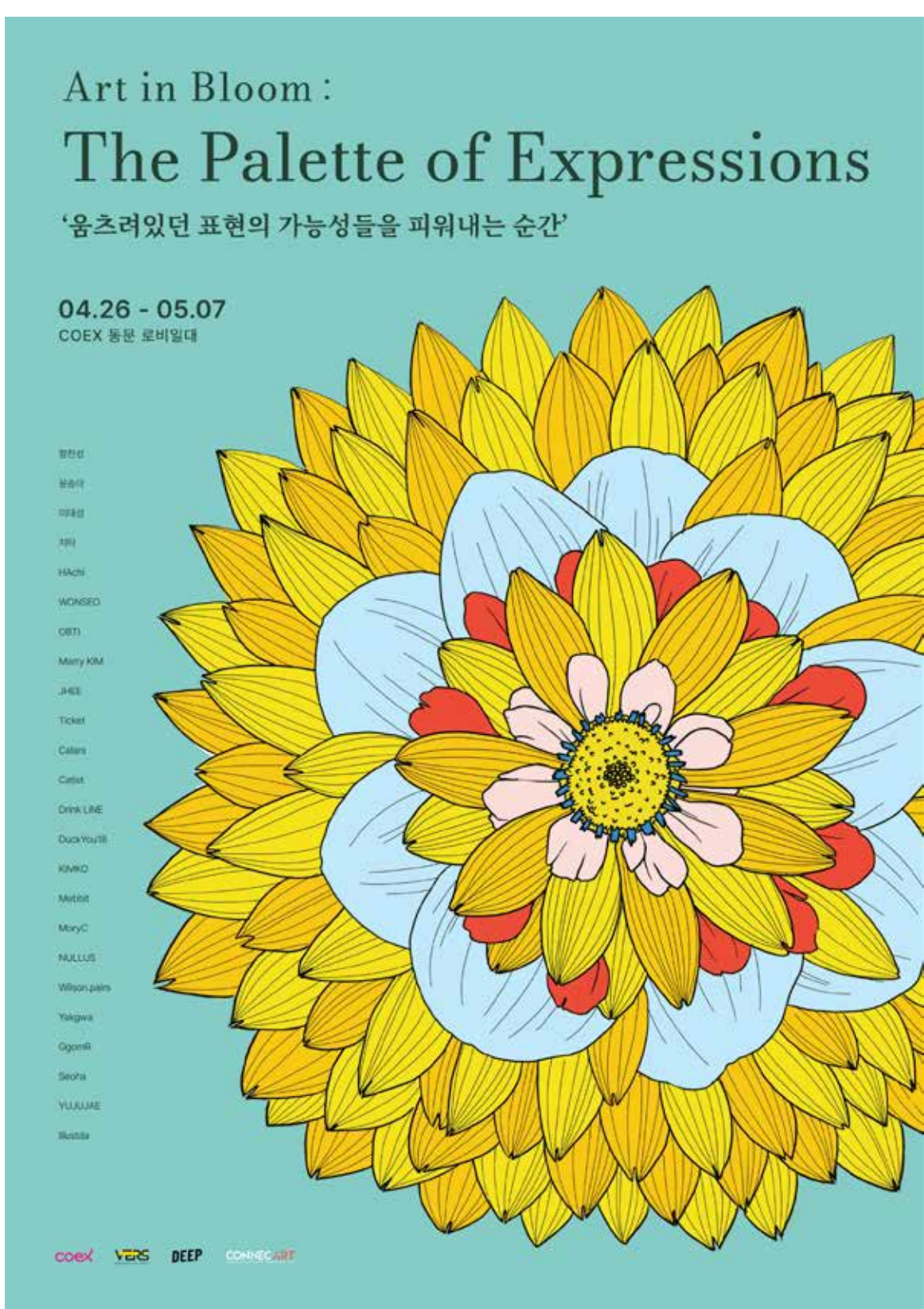
VIDO's News

코엑스에서 열리는 'Blossom The Hope' 에서 <Art in Blossom : The Palette of Expressions> 전시 개최



(원) 'Blossom The Hope' 페스티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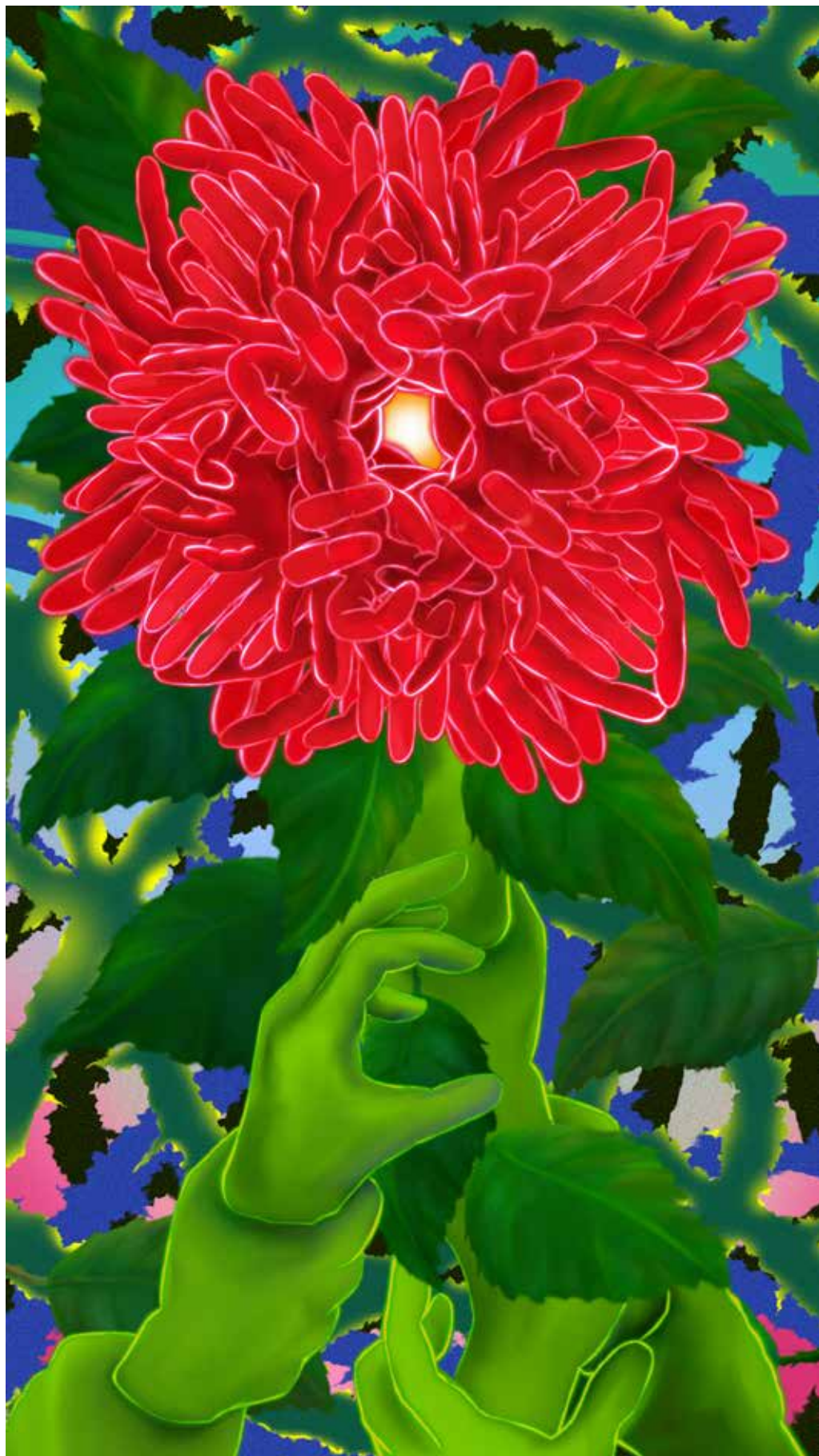
(오) <Art in Bloom : The Palette of Expression> 미디어아트 전시 포스터



5월 2일부터 코엑스에서 도심 속 힐링 페스티벌 'Blossom The Hope 2023' 행사가 열립니다. K-POP 뮤직 페스티벌, 푸드 스트리트 등 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즐거운 기억과 다양한 경험들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VIDO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를 커넥아트와 함께 먼저 개최했습니다. '움츠려있던 표현의 가능성들을 피워내는 순간'을 작가들만의 언어들로 표현하였습니다. <Art in Bloom : The Palette of Expressions> 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즐거움 뿐만 아니라 플랜테리어를 통한 다채로운 경험까지 제공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던 희망과 염원이 새롭게 피어나는 과정을 담은 전시는, 몇 년 간의 갇혀 있던 모두의 봄이 다양한

표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전시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짧은 봄이 지나가기 전 <Art in Bloom>에 방문하여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HACHI, <Right way>



Wilson.pairs,
<Springtime : Tom and Wilson's Spring Dance>



NULLUS(널러스), <Chloris>

VIDO 안의 작품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영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화 된 회화와 인스톨레이션들도 업로드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vido.gallery를 방문해보세요!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NAKTA(낙타)'



VIDEO에서 소개해 드릴 미디어 아티스트는 그래픽 아티스트 'NAKTA(낙타)'입니다. 현실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NAKTA(낙타) 작가만의 예술 세계를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화롭게 구성하여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Q. 낙타 작가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콜라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아티스트 NAKTA(낙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제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Q. 인터뷰 시작으로 가벼운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낙타 작가님 작가명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사연이 담겨 있으신가요?

A.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개인 작품을 SNS에 올리면서 저도 멋있는 작가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멋있는 이름이나 뜻 있고 의미 있는 단어로 여러 번 찾아서 세네 번을 바꾸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편하지 않은 옷을 느낌이었고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름을 바꿀 바에는 별명을 해 놓을까? 고민했는데. 그게 낙타였어요. 자주 불리는 애칭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때 낙타 닮았다면서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 줬던 건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쓰다가 바꾸자 생각하고 낙타를 영어로 썼는데 스펠링도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에, 친숙한 말이기까지 하니까 지금까지도 작가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Q. 작가님께서서는 주로 콜라주 작업을 이용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시나요? 또 일상 속 장면엔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많은데 주로 작업하게 되시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A. 저의 세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친숙하고 가까워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고등학교도 산업디자인과, 대학교는 당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각광받아서 휩쓸려 신내 건축과를 가게 됐어요. 눈에 띄는 활동이 있던 건 아니지만 계속 예술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창작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위한 정보력도 부족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3~4년 전부터 이제 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 일을 그만두고 웹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배웠던 포토샵 등의 디지털 기술들을 토대로 콜라주 작품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걸 하겠단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줄은 몰랐네요.



NAKTA, <Delusional Space>, 2023, 디지털 제작

Q. 작가님의 콜라주 기법의 작품들을 보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놓은 느낌입니다. 콜라주 작품은 보통 여러 요소가 담겨서 하나의 의미를 담는다는 게 느껴지는데 작가님 작품에선 원래부터 한 장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건 의도하신 부분이신 걸까요?

A.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면 각자 오려 붙여진 작품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콜라주를 살려서 오려 붙이는 걸 조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있었던 한 장면처럼 만들기 위해 구성하는 편이에요. 어찌 보면 컨셉 아트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도 찾는 작업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다운 스타일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함께 콜라주 요소들이 한 장면처럼 보이게끔 디테일한 요소 하나까지 신경 쓰고 조정하고 있어요.



NAKTA, <몽환경(夢幻境)>, 2021, 디지털 제작



NAKTA, <장생도(長生圖)>, 2023, 디지털 제작

Q. 미디어 아티스트 NAKTA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VIDO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남기고 싶으신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A.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작품을 할 때 이게 아트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빨리 소비되는 콘텐츠로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때 마침 VIDO를 알았어요. 제 작품이 아트로 인정받고, 전시도 진행 가능하고, 미디어 아티스트에게 재생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을 때 미디어아트로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미디어아트의 폭을 넓히면서 좋은 생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놀랐어요. 그 초창기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영광이고요. VIDO가 더 커지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고요. 나중에 VIDO와 함께 해외 전시를 여는 날을 기대합니다.

NAKTA(낙타)의 작품을 vido.gallery에서 만나보세요.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